

<특집 I : 스틸렌계 합성수지>

“ 고부가 · 차별화 전략 시급하다 ”

■PS

■EPS

■ABS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 및 가격폭락속에, 석유화학업체들은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가동률이 70%를 밑돌고 재고가 누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공업체 도산이 속출하는 등 석유화학산업계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되었던 기존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10월 한양화학의 NCC준공을 마지막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루었지만 기초유분의 자체소화 및 공급선 부족 등으로 장기간 NCC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외형적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및 가격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석유화학산업 자체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스티렌계 수지(PS, EPS, ABS)는 올레핀계 수지(PE · PP)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업체들의 잇달은 신 · 증설로 PS · EPS · ABS의 연간 공급능력은 90만톤에 달하고 있다.

반면 수요는 정부의 환경보호 차원의 생산규제 및 관련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어, 생산기업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스틸렌계 수지의 가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SM가격이 SM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지난 7월이후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 숨통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4월 고시가의 10% 할인원칙을 파기하고 유공과 동부화학이 최대 수요처인 한남화학의 요구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회용품을 비롯한 EPS 포장사용 규제로 EPS산업계의 수요감소가 불가피해지자, 가공업체들은 이에따른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스틸렌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SM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SM업체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석유화학산업의 회생 및 환경보호,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1/15>